

# “한반도에 자비와 사랑 가득하길”

## 108산사순례회, 평화를만드는교회 찾아 기원문 낭독



구랍 25일 서울 장충동 평화만드는교회에서 혜자 스님(왼쪽)과 김춘섭 목사가 남북화해 기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종교전쟁을 방불케 하는 종교갈등 속에서 불교와 개신교가 남북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해 종교인으로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혜자)는 구랍 25일 서울 장충동 평화를 만드는 교회(목사 김춘섭)를 방문해 '남북화해와 평화정착 기원문'을 채택하고 함께 낭독했다. 이날 방문은 성탄 축하와 종교 평화 차원에서 성사됐다.

혜자 스님은 기원문에서 “남북한이 화해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간절히 두 손 모읍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간절히 원하오니 부처님께서 섭수하시어 선연의 끈을 이어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통일로 불국정토가 이룩되기를 발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춘섭 목사가 “남북은 또 다시 비방과 불신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교회가 사명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다.

혜자 스님과 김 목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지속적인 기도와 활동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한편 혜자 스님과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평화를만드는교회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야기 예수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종교인으로서의 상생 정신을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 면사무소 봉투까지 십자가

## 동해면, 교회서 민원봉투 받아 써

민원용 공공봉투에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내용이 인쇄돼 물의를 빚고 있다.

포항시 동해면에 위치한 황불사(주지해안)는 동해면사무소가 민원 봉투를 이용해 개신교를 홍보한다며 구랍 27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신고했다. 동해면사무소의 민원 봉투 뒷면에는 출생·사망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 정보가 인쇄돼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포항시에 위치한 특정 교회의 연락처와 예배시간이 인쇄돼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봉투는 동해면 민간복지단체가 황불사에 연말 이웃돕기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담아 전달하면서 확인됐다. 이 봉투는 황불사 시주함에서도 발견됐다. 황불사는 이를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문제로 보고 동해면과 포항시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해면사무소는 종교편향이 아닌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협찬일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봉투 제작 예산 절감과 민원 편의를 위해 지역 내 기관 및 단체들이 제작해 민원실에 비치했다는 것이다.

동해면사무소 관계자는 “현재는 이 봉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1년 전에 비치된 것을 민간복지단체가 여분을 갖고 있다가 사용한 것이다. 교회만 홍보할 수 있고 사찰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해면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2007년 수원시 파장동, 2009년 부산 사직2동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해 불교계의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동해면은 지난해부터 협찬이 끊어지면서 자체적으로 봉투를 제작, 현재는 후원기관의 홍보문구가 인쇄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동해면은 또, 황불사가 이 사태에 대해 항의하자 면장과 사회복지 계장이 즉시 황불사를 방문해 종교편향 문제가 아니라 봉투 사용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 봉투 제작시 종교기관 협찬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동해면과 삼귀기관인 포항시에 항의의 뜻을 담은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공식자의 종교편향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일선 공무원들이 잘 모른다. 포항시청과 동해면사무소에 특정종교 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봉투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순천시 회피성 이양

#### 조·태협이 찬물 우려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순천시의 무책임한 행보로 선암사 재산관리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순천시는 시의회와 순천 선암사 측의 성보관리 부실로 인한 문화재 유실, 재산 유용 지적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구랍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산관리인 해임을 요구했다. 이어 순천시는 최근 재산관리권을 조계종에 인계하겠다고 구랍 24일 조계종 측 대표단을 만나 재산관리 이양 의사를 전달했다.

정순오 순천시 문화재담당부장은 “현재 재산관리해임을 요청한 상태로 등기상 토지 소유자인 조계종에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태고종과는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순천시의 이런 움직임에 태고종 전남지역 스님들은 선암사 재산이 조계종 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장 호산 스님,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월인 스님(부총무원장) 등 광주전남지역 100여 스님들은 구랍 25일 조선컨벤션센터에서 연합회를 열고 선암사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순천시가 선암사 분구가 종식될 때까지 재산관리를 현재처럼 관리해 줄 것을 바란다”며 “선암사 재산은 그 누구도 처분하거나 협상을 해 주권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실제 점유자인 태고종이 조계종과 굳이 협상에 나서야 하느냐는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조계종과의 대화는 선암사를 태고종 총림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대화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선암사의 법적 책임인은 문화부 장관으로 돼있고, 순천시는 관리인으로 있을 뿐이다. 순천시 또한 재산관리권을 누구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담 스님은 “23일 조계종 선암사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측 대표단과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양 종단이 합의해 재산관리법을 폐지를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순천시를 상대로 한 불교재산 망실에 관한 소송에도 조계종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 대표단 간의 본격적인 협의는 양 종단 시무시 이후인 1월 초순경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노덕현 · 양형선 광주전남지사장

# 해인사 토지 결국 팔린다

“일회성 행사를 위해 삼보정재를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교계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부동산의 매각이 결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구랍 28일 총무원회의를 열고 해인사(주지 선각)가 신청한 대장경엑스포 주차장 부지 1만2876㎡(3895평)에 대한 매각을 허가했다.

이번에 결정된 해인사 부동산의 매각 대금은 7억 8000여 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32대 집행부는 이 부동산이 해인사 입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인사의 사격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토지로 판단, 매각보다는 사용승낙을 통한 임대 형식을 권유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33대 집행부에 전임 집행부 판단을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승섭 기자

## ◆승가고시 변별력 강화한다

현행 94.6% 합격률에 달하는 조계종 각급 승가고시의 변별력이 대폭 강화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구랍 28일 회의를 열고 2011년 4·5급 승가

고시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고시위원회는 수행력 향상과 승품 확립이란 승가고시 목적을 세우고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제의 난이도 조정, 문제 은행식 출제 개선에 뜻을 모았다.

승가고시별 변별 방향은 △5급-기초교리, 연불, 습의 점검 △4급-불교학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이해 △3급-교학, 수행 심화, 종교사회적 실천 위한 기본소양 확립 △2급-종단·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역량 점검 등으로 결정됐다.

노덕현 기자

환영식에는 ‘제16회 광주아시아경기대회’ ‘제10회 광주우장에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활약한 불자체육인과 임원 2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2010년 자랑스러운 불자선수상 수상자’로 이음대(배드민턴), 김우진(양궁), 남현희(펜싱), 우호숙(인라인롤러), 정은창(탁구) 등 5명을 선정했다.

이어나 기자

## ◆가평사암聯, 구제역 희생가축 천도제

경기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승원)는 구랍 30일 가평 백련사에서 가평군과 군의회, 축산농가와 함께 ‘구제역으로 인한 희생가축 위령대제’를 봉행했다.

위령대제는 개회와 함께 제불보살을 청해 모시고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의 축원, 가축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시식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장엄염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백련사(주지 승원)와 가평 사암연합회는 위령대제를 계기로 강남 봉은사 등 전국 주요사찰에서 위령대제를 지속적으로 봉행할 예정이다.

이어나 기자

## ◆포교원, 불자선수단 환영식 개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구랍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광주우 아시안게임 불자 선수단 환영식을 가졌다.

# 조계종 전법단, 본격 활동 나선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 등 취약분야 포교 활성화와 신도단체 조직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조계종 전법단(총재 혜총, 조계종 포교원장)이 2011년 전국에 전법단을 설치하고 후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은 구랍 28일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제1회 전법단 대표자 워크숍을 열고 2011년도 조계종 전법단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조계종 전법단은 2010년 구성하지 못한 계층 영역과 지역을 전법단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영역별로는 교정교화, 국제포교, 청년, 장애인 전법단을,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대전충청 인

전지역 전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교정교화 전법단은 1월 20일, 국제포교 이주민 전법단은 2011년 상반기 중 위촉 예정이다.

전법단은 이날 워크숍에서 포교활성화와 지도자 교육을 위해 매년 11월 말 전 통불교문화원에서 각 영역, 지역별 대표자 50여 명이 참여하는 대표자 연수를 개최하고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2011년 지원 예산은 2억 4959만원이며 병원전법단 한국임상전문지도자교육 불교임상전문지도자 보수과정, 광주전남 전법단 사무국 설치 지원 등 각 분야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노덕현 · 이어나 기자

###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중단



#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 ■ 중 정 총무원장 : 혜인

#### ■ 총무원

- 부원장: 동안
- 총무부장: 성산
- 재무부장: 도불
- 교무부장: 정덕
- 사회부장: 원광
- 문화부장: 지운
- 총무국장: 천산
- 재무국장: 묘현
- 교무국장: 지성
- 사회국장: 법천
- 문화국장: 혜일
-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 총무과장: 용산
- 총무계장: 조덕연

#### ■ 총림

- 서울총림 해인사
- 삼화총림 백화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백전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충북총림 청룡사

### ■ 역경원장 : 혜산법중 방장 : 혜일, 대련, 혜경 중앙선원장 : 도일

#### ■ 중단법인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사단법인 전지부에도협회
-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 의료법인 효성
-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 사회복지법인 정향
- 사회복지법인 인주

#### ■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 발행인: 혜인
- 편집인: 조덕연
- 논설위원: 이기형
- 사회복지가: 이근진
- 이사: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 관보: 혜인, 묘현, 지성, 보현, 법산,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 ■ 원로원 : 법중,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총회의장 : 백공

#### ■ 지방교구 총무원장

- 서울교구총무원장: 상산
- 경기교구총무원장: 도불
- 인천교구총무원장: 해원
- 강원교구총무원장: 광덕
- 충남교구총무원장: 혜덕
- 충북교구총무원장: 백공
- 대구교구총무원장: 원명
- 경북교구총무원장: 원광
- 경남교구총무원장: 도홍
- 경남남부총무원장: 천산
- 경남서부총무원장: 지원

#### ■ 중단사업부

- 대표이사: 노사나
- 사업부: 김희곤
- 삼화불교
- 좋은상조: 김호철
- H&G: 이영호

#### ■ 전국신도회

- 고문: 김윤주
- 회장: 인관식
- 사무처장: 이상훈
- 부산신도회장: 허민
-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 청년신도회

- 회장: 손영진
- 홍보처장: 박영실
- 사무처장: 조덕연
- 기획실장: 조일

###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 삼화불교대학원

- 학장: 법중 부학장: 혜원
- 교수: 법중, 백공, 혜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근
- 교과: 순정, 최정화
- 운영이사: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가, 법산,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 ■ 삼화불교대대학원

- 원장: 혜인
- 교수: 법중, 정수, 송암, 성민
- 운영이사: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승,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목

#### ■ 중국남경종의약대학

- 총장: 오만화 부학장: 황봉, 가산
- 한국총장: 순혜인 중국대학교장: 손영진
- 학생처장: 정 노사나 조교: 심미, 유유, 순정 국제부교과장: 이안산
- 운영이사: 혜담, 보현, 본각, 수옥, 관보, 향인, 수정, 현조, 묘현,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 / 팩스 (02)511-2028  
총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종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